

LG화학, 청주공장 관계자 형사처벌

홍덕경찰서, 안전관리자 피의자 조사 ... 회수공정 설계와 달리 시공

8명의 사망자를 낸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청주 홍덕경찰서는 9월13일 청주공장의 일부 시설이 애초 설계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안전·시설 담당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홍덕경찰서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재료공장의 폐(廢) 다이옥산 회수공정이 설계와 달리 시공됐다”고 밝혔다.

설계도면상 3층에서 휘발성 용매인 다이옥산(Dioxane)이 투입되고 2층에서 가공이 이루어진 뒤 1층에서 폐 다이옥산을 회수하도록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2층에서 폐 다이옥산을 회수하는 구조로 시공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이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상자를 내게 한 원인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시설 관리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며 “처벌대상이 몇 명이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8월23일 오전 10시16분께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LG화학 청주공장의 OLED재료 공장에서 다이옥산 드럼통이 폭발해 현장에 있던 근로자 11명 중 8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14>